

화순군, 농기계 임대 이용 크게 증가

전년 대비 임대실적 20% · 기계화율 ↑

농가 경영비 절감 · 노동력 부족 해결

화순군의 농기계 임대 건수가 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다.

9월 화순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농기계 임대 실적은 2509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92회와 비교해 20% 증가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임대 농기계 현장배출 서비스는 화물차량이 없는 농민부터 영농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 여성 농업인, 귀농인에게 만족도가 높다. 실제 올 상반기 농기계 현장배출 서비스 이용 횟수는 225회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55회와 비교해 증가율이 45%에 달한다.

임대사업은 농작업 기계화율 제

고, 부족한 농촌 일손 해소, 농가의 값비싼 농기계 구매 부담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농기계 임대사업 효과를 평가한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콩 등 8개 주요 작물을 재배에 임대 농기계를 이용한 경우 임작업료 절감률은 52%, 작업 시간 감소율은 90%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쳐왔다. 군은 올해 초 '2018년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돼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밭작물 농기계 13종 38대를 구매·배치했다.

주요 밭작물인 콩의 '주산지 일



관 기계화 사업(일관 기계화 재배) 추진을 위해 국비 1억(총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농업, 작목반,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영농 취약계층 누구나 농사

짓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현장배출 같은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임대사업소 본소(주변 · 379-5465)와 분소(동북면 · 379-549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관광지 시설물 관리 등 12개 사업 37명 모집

영광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19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사업은 관광지 시설물 관리 등 12개 사업으로 37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

억 원 이하인 군민이다. 1세대 2인,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지방·건강보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들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환경정화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배치되어 1일 7.5시간, 주 30시간 이내(만65세 이상은 15시간 이내) 근무하게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양파 특별 소비 대책' 총력

장성군이 작황호조로 가격하락을 겪고 있는 햇양파의 가격지지를 위한 특별 소비 대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대량 소비처 판촉, 해외수출, 가공확대 등 '특별 소비 대책'을 통해 올해 양파 생산량 1만여 톤 중 1,500톤을 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성군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관내 농업과 학교, 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 기타 생산자 단체들이 참여한다.

먼저 장성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과 목포 등 대도시 대형마트 특판 행사를 열고 양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장성군 상무대, 농협중앙회장성군지부가 상무아파트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는 '팜밀리마켓'을 열고,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특판행사를 진행해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여기에 삼계농협이 장성군 최초로 대만에 400톤의 양파를 수출하게 되어 금년 햇양파 특별 소비대책의 목표 달성에 큰 힘을 보태게 됐다. 지난 4월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유두석 장성군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양파 대만 첫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 첫 수출물량은 24톤이며, 총 15회에 걸쳐 400톤의 양파를 수출할 계획이다.



함평군, 논산시 딸기 육묘 선도농가 방문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9일 군 농업대학 교육생 40여 명과 함께 충남 논산시를 방문, 딸기육묘현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정시욱 딸기팀장의 특강을 듣고 실증 시범포에서 전시·활용 중인 관수 시스템, 작물보호제 등을 관찰했다.

이후에는 충남농업기술원 논산딸기 연구소를 방문,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딸기육묘과정 등을 질의응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김동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군은 국·도비 확보를 통한 축산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사업 4개소,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사업 1개소를 지원하고 있다"며 "딸기재배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딸기 전문농민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군, 지방세 모바일 전송 서비스 시행

담양군이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고 고지내역 확인과 납부

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 또는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 후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며, 이후 8월 주민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받은 고지서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물론, 기전대로 금융기관의 CD/ATM이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1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300원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되면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며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3)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철 기자

나주시, 도시민 '국화 재배교육' 인기

경력단절 여성 · 주부 등 행복충전 · 자존감 회복 기여



나주시가 도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유도를 위해 운영하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마음을 가꾸는 원예교실 국화 재배교육'이 경력단절 여성 등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국화재배교육은 지난 5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2, 4째 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에서 총 11회 과정(월 2회)으로 부규홍(전 광주북구청 국화축제 기술

감독)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화재배 관리 및 번식 방법 등 기본 이론과 분재국, 복조국, 입국, 옥국 등 다양한 모종의 국화재배·관리 실습 등으로 수료 이후에는 국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도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여자들 중 특히 혁신도시 경력단절 여성 주부들의 정서 함양과 자존감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부정부패 엄단 '청렴 고삐 죄다'

청렴 · 친절 강화하고 조직 안정성 확보

정준순 장흥군수가 민선7기 2년차를 시작하며 7대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 배임, 음주운전, 성범죄 등 4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는 불친절, 내부 정보유출, 선거운동 개입을 비위 대상에 추가한 7대 부정부패 리스트를 밝히고, 관용 없는 강령 처분을 예고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 군수는 부정부패한 구조를 바로 잡아 청렴하고 친절한 장흥을 만들고, 행정 안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군민소

득 향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대 부정부패 척결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되 군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온 관행들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는 정도 · 혁신 · 화합행정 실천의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7대 부정부패를 위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비위 정도를 불분하고, 직위해제, 보직박탈, 인사 불이익 등 강력한 징계양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지역민과 공직자들에게 청렴문화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